

山林養苗 30年の反省

萬樹園 金 命 源

山林養圃에 종사하여온지 어언 30개성상 초기 기술 습득기간등을 합계하면 근 40年이라는 一生을 山林養苗에 몸바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아득한 과거를 회고하여 보니 실로 감개무량할 뿐이다. 그동안 다른 직종인 木手나 미장공 같은것을 전공했다라도 40年 종사했다면 名工으로 자처할 경지에 이르렀을만한데 山林養苗 종사 40年은 아직 미숙련공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다. 실로 山林養苗는 알것같은것서도 모르는 점이 너무나 많았다.

一例로 오리나무 낙엽송 養苗를 들더라도 지금까지 마음대로 성적을 올려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전반적인 성적에 있어서도 단 한번도 100% 성적을 올릴때가 거이 없었다. 평점한다면 겨우 낙제점이나 면할 정도라 할까?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것은 물론 나의 천학비재의 탓이겠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에 과거 실패의 원인중 중요한 몇가지 문제를 회고 반성하여 보던 방법을 몰라서 보다는 알면서도 충실히 이행 못한 데서오는 실패가 많았다. 그 예로서

1. 圃地의 選定

山林養苗에 있어서의 圃地選定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借地養苗의 경우 흔히 시업기를 목전에 두고 포지선정하는 예가 많았는데 이것은 위험천만이었다. 포지선정은 적어도 一年前부터 한발기 장림기 농번기, 노력, 공급문제등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이었다.

2. 種苗의 確保

우량종묘의 확보는 포지선정과 함께 사업성패를 가름하는 중요조건의 하나이다. 우량모수로부터 적기 채취하여 업선을 거쳐 발아시험까지

충분히 해야함은 사업하는 자로서 상식이하의 문제이나 이것은 철저히 이행하지못한때가 많았다.

3. 資材의 確保

충분한 資材를 써야 좋은 成果를 얻는다는것은 양묘사업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다. 양묘에 있어 資材 절약이란 있을 수 없다. 10의 資材로서 만이 10의 成果를 기대할 수 있으나 7의 資材를 가지고는 10의 成果를 期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資材를 맹목적으로 과다투입 한다고 좋은 成果를 낸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적정 자제를 두고 하는 말이나 資材의 과부족에서 오는 실패가 있었다.

4. 肥培管理의 徹底

아무리 이상적인 포지에 우량종묘로 시업했다 해도 비배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 역시 좋은 성과는 난망이다. 비배관리는 앞의 三者와 함께 4대 중요조건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임을 절약하여 조상등 기초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제초를 간략하게 하려고 무작정 제초제를 남용하거나 하는 식의 시업방법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이상 몇가지 문제와 같이 양묘성공의 길은 특별한 비결에 있는것이 아니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착실한 실천에 있는 것이며 항상 알면서도 실천 못했거나 안한데서 실패의 원인이 많았다.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자금 노력등 충분히 고려하여 무리하지 말고 응분의 적정량을 시업하여 항시 재배식물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단한 관찰 공부 노력만이 좋은 성과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재삼 반성하고 싶다.